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글 - 이내원(이순신 숭모인)

이순신 장군은 지금부터 약 460년 전 우리 옛 나라 이름 조선 인종임금 때인 1545년 3월 8일(양력 4월 28일) 서울의 건천동*(현재의 중구 인현동)에서 선비*이며 학자인 아버지 이정과 어머니 초계 변씨의 네 아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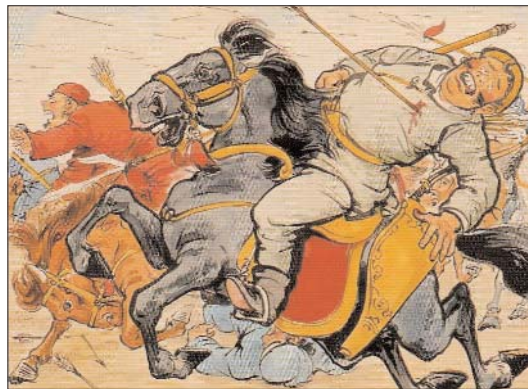
어린 시절 열심히 공부하여 높은 학문과 지식을 갖춘 후 21살 되던 해에 보성군수*를 지냈던 무장 방진의 외동딸과 결혼하고 다음해 22살 때부터 훌륭한 군인이 되기로 하고 말타기, 활 쏘기 등 무술을 익혀 28살 때 군인 장교를 뽑는 나라의 무과시험*에 응시하였으

나 타고 달리던 말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고 불합격을 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여 4년 뒤 32살 때 드디어 정식으로 합격하여 군관(장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합격은 다른 사람보다 약 10년은 뒤떨어진 아주 늦은 공직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세운 뜻은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내시는 마음이 아주 굳건한 분인 줄을 알게 됩니다.

처음 임명을 받은 초급장교* 시절에는 우리나라의 북쪽 맨 끝 국경지역*인 함경도 동구비보* 수비대*의 권관*(오늘날의 육군 소위)이 되어 북쪽 국경을 자주 침범하여 말썽을 일으키



▶ 읽기 도우미

건천동(name of the place where Yi Sun-Shin was born) -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 현재는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부근.

선비(a classical scholar) - 학문을 닦는 사람.

보성군수(Bo-Sung County Executive) - 전라남도 보성군의 행정 책임자.

무과시험(Military Exam) - 군대의 장교가 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

군관(장교, a military officer)

공직생활(a public career)

초급장교(a junior officer)

국경지역(border, frontier)

함경도 동구비보(name of the fortress located northern part of Korea) - 한국의 북쪽에 위치한 중국과 인접한 지역

수비대(garrison)

권관(a second lieutenant)

던 여진족*들을 용감히 싸워 내어 쫓았고 몇 년 뒤 서울로 전근* 와서는 군인들을 훈련하는 훈련원*의 봉사*라는 사무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순신의 직접 상관*으로 오늘날의 국장급에 해당하는 서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옳지 못하게 법과 순서를 무시하고 자기와 잘 아는 사람을 승진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담당자인 이순신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순신을 미워하며 앙심*을 품고 뒷날 이순신을 해치게 됩니다.

36살이 되던 해 드디어 전라좌수영*의 발포*라는 포구*를 지키는 수군만호*가 되어 처음으로 바다를 지키는 책임을 저 원칙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채 2년도 되기 전에 공교롭게도 앞서 말한 서익이 군 검열관*인



군기경차관*으로 발포에 와서 앙갚음으로 이순신에 대한 평가보고를 거꾸로 나쁘게 하는 바람에 이순신은 억울하게 파직*되지만 이순신은 조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해 다시 북쪽 함경도의 조산보 만호*와 녹둔도 둔전관*으로 일하던 중 여진족의 기습*을 받아 용감히 싸워 물리쳤지만 또 모함*을 받아 두 번째 파직*을 당하고 계급도 군복도 없이 일반 백성처럼 흰 옷을 입고 따라다니며 일하는 백의종군이라는 처벌을 받았지만 그 다음 해에 전공을 세워 백의종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다음해 45살 때에는 오늘날의 면장에 해당하는 전라도 정읍현감*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는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을 때 오늘날의 부총리*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에 있던 건천동의 어릴 때 세 살 맞이 친구 유성룡의 강력한 추천으로 여수 근처 다섯 포구와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지역 해군사령관격인 전라좌수사*로 특별 승진되어 드디어 장군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유성룡은 어릴 때 이순신과 같이 자라 누구보다도 이순신의 사람됨을 잘 알아서 이순신이야말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구해낼 수 있는 인재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이순신을 천거*했던 것으로 서익의 비뚤어진 정실* 추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진족(a tribe in Manchuria) - 우리나라 북쪽 중국 만주 지역에 살던 종족 이름.

전근(be transferred)

훈련원 (military training school)

봉사(a name of the junior government post)

상관(a higher officer)

앙심(spite, ill will, grudge)

전라좌수영 (Navy base in Southwestern coast of Korea) - 한국의 남서쪽인 전라도 지역에 설치된 해군 기지

발포(name of the port in southwestern coast of Korea)

포구(a port, harbor)

수군만호(navy commanding officer)

군 검열관(military inspector)

군기경차관(name of the military post)

조산보, 녹둔도(name of the fortress and island in Northern Korea)

만호, 둔전관(military post)

기습(a surprise attack)

모함(false incrimination)

파직(dismissal from office)

정읍현감(Jung-eup county executive)

부총리(a deputy prime minister)

전라좌수사(navy commander of Southwestern Korea)

천거(recommendation)

정실(private favoritism)

유성룡의 생각대로 이순신 장군은 왜군*의 침입으로 쓰러져가는 나라를 구해냈으니 서로 굳게 믿고 알아주는 좋은 우정*이 크나큰 일을 해낼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전라 좌수사에 임명되자마자 이순신 장군은 바로 전쟁준비에 착수하여 남은 무기와 배를 수리하고 군사를 훈련하는 한편 새로운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궁리를 거듭하여 세계 최초로 바다 위의 탱크라고 할 수 있는 신기한 무적의 철갑* 거북선을 만들어 내니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연구심* 과 창의력* 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그 바쁘신 중에도 친히 매일 쓰신 『난중일기』* 를 보면 1592년 4월 12일에 새로 만든 거북선의 마무리 화포발사* 실험을 끝낸 것으로 기록하셨는데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날인 4월 13일에 오늘 의 일본인 왜군 16만 명이 부산 앞바다를 건너 물밀듯 쳐들어왔으니 이순신 장군은 실로 하늘이 내린 구원의 명장*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가 선조임금*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왜군이 잔인하고 욕심 많은 그 우두머리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 의 명령에 따라 평화로운 우리땅으로 쳐들어오자 이순신 장군은 오직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보호해야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겁에 질려 싸움을 피하는 다른 장수들과는 달리 지혜롭고 용감하게 싸워 길고 지루하고 참혹한* 7년 전쟁 동안 한 번도 지지 않고 싸울 때마다 이겨 옥포, 사천, 한산도, 부산포, 명량, 노량 싸움 등 14번의 완전하고 찬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왜선 500척과 이를 쫓는 조선과 명나라* 연합수군* 400척이 맞붙은 치열한 노량해전에서 아깝게도 적탄에 맞아 숨을 거두시면서도 오직 나라를 걱정하여 “지금 싸움이 한창이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이르셨으니 이순신 장군은 자기 자신보다도 오직 나라와 백성을 먼저 걱정하는 성스러운 구국* 의 명장이요 우리 모두의 은인입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께서는 남해와 서해 모두를 책임지는 삼도수군 통제사* 로 계셨습니다.

얼마 뒤 인조 임금* 은 이순신 장군의 찬란한 공적과 숭고한 나라 사랑

왜군(Japanese troops)

우정(friendship)

철갑(iron clad)

연구심(spirit of study)

창의력(creativity)

난중일기 (Yi Sun-shin's diary during war against Japanese) –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에 쓰신 일기. 한국의 국보로 지정되었다.

화포발사(Firing cannons)

구원의 명장(great commander of eternity)

선조임금 (14th King of Chosun) – 조선 제14대 왕. 임진왜란을 겪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Japanese Supreme Ruler—the invader) –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장수

참혹한(disastrous)

명나라(Ming Dynasty of China)

연합수군 (Joined Navy Force)

구국(rescue of one's country)

삼도수군 통제사 (Navy Commander in Chief of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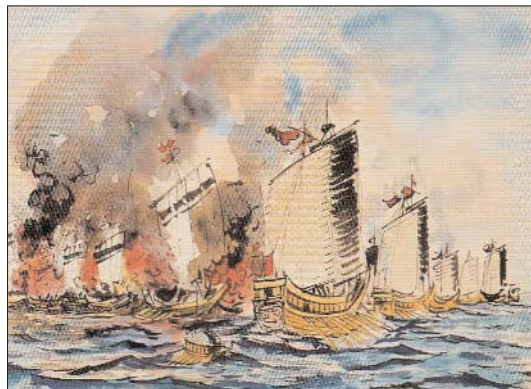
인조임금 (16th King of Chosun)

을 기려 죽은 뒤에 그 사람을 지극히 높여 부르는 충무공이라는 가장 높은 시호*를 내려 그때부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가장 존경하는 위인*일 뿐 아니라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제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와 싸웠던 일본사람들마저 몹시 우러러보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위인입니다.



1905년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법*의 원리를 응용하여 막강한 러시아 극동함대와 싸워 이김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은 주위에서 그를 이순신 제독과 같은 위인이라고 칭송하자, 이에 “나의 공로를 영국의 넬슨* 제독에 비교하는 것은 받아들

일 수 있으나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는 따라갈 수 없다. 그 이유는 넬슨 제독이나 나는 국가에서 만들어준 배와 국가가 훈련한 군사를 이끌고 비슷한 숫자의 배를 갖고 전투에 임하여 승리하였다. 그러나 이순신 제독은 국가의 지원 없이 스스로 거북선을 개발하여 만들었고, 국가의 지시 없이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여 미리 군사를 훈련시켰으며, 몇 척 안 되는 폐선*으로 막강한 전력의 적군과 23회에 걸쳐 싸운 해전에서 연전연승*하였다.”라고 말하며 이순신 장군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했습니다. 비록 옛날에 자기 나라를 물리친 적국의 장수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평가하는 도고 제독 또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비할 데 없이 훌륭한 참된 이유는 이순신 장군께서 갖추신 숭고한 인격*과 모범적인 행동과 실천 때문입니다.



나를 돌보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충무공의 기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각으로 오늘날 민주주의 바탕이 되는 정신입니다. 다른 말로는 “충효와 공도위민의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나라와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고, 공평하고 바른 도리로 백성을 위해 준다는 뜻입니다.

시호(Special Recognition by King) – 생전의 공덕을 칭송하여 임금이 내리는 칭호.

위인(a great man, a hero)

해군제독(an admiral)

학익진법 (Yi Sun-shin's encircling battle formation of crane wings shaped) – 학이 날개를 퍼듯이 치는 군사 배치법.

도고 헤이하치로-일본의 유명한 해군 대장

넬슨 – 영국의 유명한 해군 대장

폐선(a scrapped vessel)

연전연승(a succession of victories)

숭고한 인격(sublime personality)

이와 같은 정신으로 이순신 장군은 나라와 백성을 첫째로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쳤으며 부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시고 가족과 부하들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래 사람들이 부모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강한 정의감, 책임감과 물러서지 않는 용기

이순신 장군은 정의감*이 몹시 강해 늘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렸으며 책임감*이 강해 자기가 맡은 일은 목숨을 걸고 해냈던 것입니다. 앞서 말한 서익 사건에서 보았듯이 그 일이 옳지 못하면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라도, 뒤에 어떠한 손해나 위험이 닥쳐올 가능성이 있더라도 단호히 맞섰던 것입니다.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해내려면 물러서지 않는 강한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싸워 이긴 모든 해전은 모두 2배, 3배, 5배 심지어 10배나 많은 적과 맞서 싸운 용기의 본보기입니다.

정의감(a sense of justice)

책임감(a sense of responsibility)

큰일과 작은 일을 분별하는 지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일에는 큰일과 작은 일, 더 급한 일과 덜 급한 일의 구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항상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원칙을 잘 지켜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라좌수사가 되자마자 바로 전쟁준비를 시작한 것이나, 법을 어긴 죄인들을 즉각 엄히 벌하여 수군 전체와 백성의 흔들림을 막은 일, 일기에 손수 쓰셨듯이 그 부인이 병이 들어 죽어간다는 기별을 받고도 “나랏일이 급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쓰신 일이나 어머니를 그렇게 그리워하면서도 자기가 다스리는 여수 지역에 계신데도 책임을 다하려고 3년 동안이나 찾아뵙지 못한 일들이 그 좋은 본보기들입니다.

원망하거나 자랑을 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

이순신은 32살에 무과시험에 합격하여 54살에 노량해전에서 전사하

실 때까지 22년 동안 3번 파직*당하고, 시기심 많은 선조임금의 미움과 욕심 많은 원균 장군의 모함*을 받아 사형에 처할뻔하고 두 번째 백의종군을 당하는 파란 속에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반대로 싸움에 이긴 공로로 벼슬이 자꾸 높아져도 “공은 없는데 이름만 난다.”



라고 겸손해 했습니다. 또 항상 자기 자신을 나라를 지키지 못해 『임금을 피란* 가고 욕되게 하고 백성에게 고통을 안겨준 죄인』이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는 참을성

도고 제독의 말처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순신 장군처럼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군과 싸운 장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점이 이순신 장군이 영웅 중의 으뜸 영웅이요 위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위인으로 돋보이게 하는 이유입니다. 전쟁이 나자 임금이 서울을 버리고 압록강*변의 의주*로 피란 가는 바람에 이순신 장군은 조정(정부)의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 스스로 군사와 군량(양식)을 모아 드려야 했고 무기를 수리하고 만들어야 했으며 피란민*까지 맡아서 돌보아야 했습니다. 더구나 무거운 책임과 걱정으로 잠을 못 자고 끊어질 듯 아픈 속병을 견디며 일해야 했습니다. 또 조정의 도움은 커녕 당파* 싸움에서 오는 온갖 시기와 의심과 괴롭힘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창의력

이순신 장군께서는 일을 더 잘해내고자 항상 더 좋은 것이나 방법, 제도 등을 생각해 내는데 정성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적의 공격을 끄떡없이 막아내며 안심하고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거북선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 내셨으며 군사를 먹일 식량 걱정을 덜고자 둔전이라는 군사농장을 만들고, 적의 간첩활동을 막으면서 군량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해로통행첩을 만들었습니다. 또 전쟁이 길어지자 싸우는 군사들이 국가시험인 과거를 보지 못해 억울해지자 나라에 건의하여 임시로 한산도* 진중과거*를 치르게 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생각이 깊은 분이 아닙니까?

파직(dismissal from office)

모함(false incrimination)

피란(refuse, evacuation)

압록강(the Yalu River in the border of Korea and China)

의주(Name of the City in Northern border of Korea and China)

피란민(refuge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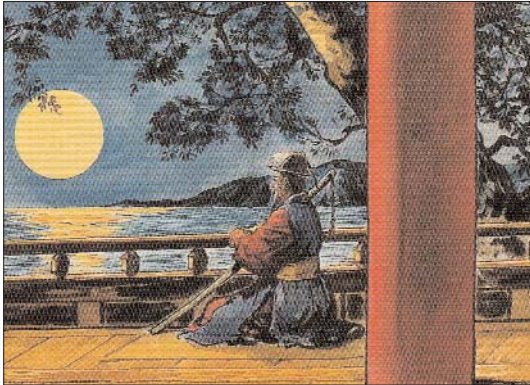
당파(political party)

한산도(Name of the island in Southern Korea)

진중과거(the examination for government service held in military camp)

남다른 기록정신과 부지런함

또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수라 하더라도 싸움만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웬만큼 중요한 일은 일일이 손으로 써서 임금께 보고해야 했고 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일일이 편지로 임금님께 건의해서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중에도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 기나긴 7년 전쟁 동안 꼬박꼬박 일기를 쓰셨는데 그때 쓰인 일기를 우리는 『난중일기』라고 부릅니다. 이 일기는 그때그때 새로운 느낌이나 일어난 일을 느낀 대로 써 놓으셨기 때



문에 이 『난중일기』를 꼼꼼히 읽으면 이순신 장군의 마음과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알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보물입니다.

장군께서는 시도 아주 잘 지으셨는데 그중에서도 장군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두 편을 골라 보았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어루만지며 깊은 시름하는 적에
어디서 한가락 피리 소리 그 시름을 더하는가
(한산도의 노래) - 이내원 새번역

한바다에 가을빛 저물었는데
추위에 놀란 기러기 높이 떴구나
가슴에 근심 가득 잠 못 드는 밤
새벽달 창 너머로 활과 칼을 비추네
(한산도의 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행동은 군대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 공무원, 연구실, 회사, 사업운영 등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아주 귀한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연구하고 본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배우고 본받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